

지역특집



전국 최고의 단풍 절경을 자랑하는 순창 강천산이 이번주 부터 붉은 빛 절경을 이루면서 가을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 순창 강천산 단풍 '유혹'

### 오는 주말부터 11월 2째주까지 붉은 단풍 장관 관광객 인기

전국 최고의 단풍 절경을 자랑하는 순창 강천산이 이번주 부터 붉은 빛 절경을 이루면서 가을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강천산 단풍은 이번 주말부터 절정을 이뤘 11월 2번째 주까지는 전국의 관광객이 붉은 단풍 장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군 측은 전망하고 있다.

강천산은 애기 손바닥을 닮고 기존 단풍보다 작아 일명 애기단풍으로 불리는 붉은 단풍이 온산을 뒤덮고 있다.

특히 병풍폭포에서 구장군폭포까지 이어지는 맨발 산책로 2.5km 구간에는 애기단풍이 병풍을 치듯 늘어서 단풍 절정기에는 붉은 용단 터널을 걷는 느낌을 들게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 강천산은 병풍폭포와 구장군폭포 등 아름다운 폭포와 기암괴석이 즐비해 예부터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산이다.

군은 이번주 부터 가을 단풍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불릴 것을 대비해 성수기 근무태세에 돌입했다.

실제 강천산은 단풍절 최고 성수기 때는 지난해 하루 최대 3만 7천명, 2014년에는 4만 2천명이 방문할 만큼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군은 평일 30명 근무자를 주말과 휴일에는 44명으로 늘리고 임시주차장을 운영한다.

음용온천수 주변 임시주차장에서 강천산 초입부까지는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해 관광객의 이동을 돕는다. 또 이동식 화장실을 확대설치하고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시스템도 개선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군측은 이번 주말 부터 3만명 정도가 강천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천산 애기 단풍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붉은 빛을 자랑한다"며 "이번 주말부터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만큼 많은 분들이 강천산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천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할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강천사 등 문화재 등이 있는 순창 대표관광지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남원시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고강도 현장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1일부터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가금농가 소독약품 및 발판소독조를 공급하여 농장 자율 방역활동을 강화 하였으며, 급번 가금농가(179농가) 전수 방역실태 일제점검은 AI 방역을 현장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금농가 전수 점검은 1차로 읍면동 가금전담요원(25명)이 10월 24일부터 11월4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2차 점검은 축산과장을 포함한 축산과 전직원이 1차 점검에서 미흡농가를 위주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실태 점검결과 미흡농가는 과태료 처분과 차년도 보조사업 지원 중단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방역실태가 개선될 때까지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남원시 가금사육수수는 1,000만수에 육박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청정 축산지역이란 이미지가 굳어져 지속적으로 가금사육수수가 증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성과보고회

북분자 산업현황 특강 등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그동안 추진한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27일 고창농리국악당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 도의원, 군의원, 농가·가공업체,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보고회에서는 농 농업기술센터 송진 의 소장의 '북분자 및 베리류 산업 현황'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연구소에서 그동안 추진한 연구 성과 발표, 성과활용상황과 연구방향제시, 2017년도 사업계획 발표가 이뤄졌다.

아울러 북분자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경희대 약학대학 이경태 학장의 '북분자의 고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강의를 통해 북분자의 의약소재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소개 했고, 지역 가공업체인 신도복분자(대표 인문규)와 고창농부의아침(대표 김명철)의 사례발표가 진행돼 연구성과와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그동안 연구소를 잘 알지 못했던 여러 군민들이 연구소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고회와 함께 마련된 성과전시장은 기업현장연구 14건, 기술컨설팅과 기업지원 14건, 베리류와 지역특화자원 가능성 홍보 5건, 북분자·잡어푸드테라피사업 10건을 비롯해 베리굿스산업육성사업 11건 등 총 54건에 대한 성과물인 특허 목록과 시제품이 전시됐다.

박우정 군수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군민과 관내·외 기관에 연구소의 역할을 알리고 군민에 다가가는 연구소로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며 군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며, "연구소가 베리류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개최

임실군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7일 군청 농민교육장 등 3개소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 농림, 지역개발 등 3개분과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일수 위원장은 이날 예산편성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 소모성·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한 예산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복흥 추령장승축제 개막

제22회 순창 복흥 추령장승축제가 오는 29일 복흥면 서머리 추령장승촌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복흥추령장승축제 제22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을 계승하고 향토문화인 장승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로 복흥의 멋과 흥, 정이 어우러진다.

이번 행사에는 장승과 사진찍기, 풍물공연, 트로트 및 민요 가수공연, 각설이, 설장고, 농경체험 및 사진전시회, 즉석 노래자랑, 농산물 전시판매 등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고리걸기, 제기차기, 새끼꼬기 등 현장 즉석게임도 진행돼 축제의 흥을 돋운다.

특히 추령 장승촌에는 1,000기 정도의 다양한 모양의 장승이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장승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도농연계 6차산업화사업 공모 선정

### 총사업비 5억원 지원... 공동이용시설 구축·홍보·역량강화사업 병행 추진 등

임실군이 친환경농업의 6차산업화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2017년 도농연계 6차산업화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임실군에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 전라북도가 주관한 '2017년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대상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도내 14개 시·군 평가 결과, 임실군이 최고등급(A등급)을 받음으로써 내년도에 국비 포함, 총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년간(2015~2016) 역량강화 등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차원의 공동 조직화 사업의 성과를 매해마다 평가를 진행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며, 최종 평가인 2017년도의 계획에 대한 적절성,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A등급을 받게 된 결과이다.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청용면 친환경채소작목반'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임실군마을기르기협의회' 등이 공동참여하여 공동조직으로 구성되었고, 향후 별도의 법인을 구성할 예정이다. 2017년도에는 새롭게 공동이용시설('친환경농산물 공동작업장 및 전처리시설')을 구축하고, 홍보·마케팅, 역량강화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정 결과로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급식의 단초를 마련했고, 2015년에 개정한 임실치즈마을 내 로컬푸드직매장(여무누리)에 친환경 신선과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농가는 소득을 가져오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서월 한강공원에 청보리 파종

### 초등학교 재학생 60명 참여

경관농업 우수사례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고창 청보리밭의 풍경을 내년에도 서울 한강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세 번째로 서울 이촌한강공원 등 3개소에 보리를 파종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보리파종은 2014년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약 1만1500㎡의 면적에 고창 보리를 파종했다.

이번 보리 파종 행사에는 서울한강초 재학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보리 파종 체험과 보리밭 시식이 함께 이뤄져 색다른 경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도록 진행했다.

참여 학생들은 오색보리 중 마음에 드는 색의 보리 종자를 선택해 직접 파종해 보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공원을 찾은 서울시



민들도 컬러보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군은 지난해 한강공원에 6000㎡에 보리를 파종해 올 5월 '서울 한강 청보리 축제'를 개최하고 푸른 보리의 청량함과 고창 문화예술 공연과 고창농·특산물 판매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수확한 보리는 저소득계층 등 서울시민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군은 앞으로도 보리밭 밭기와 한강 청보리 축제를 개최해 도심 속에서 청량함과 따뜻한 고창의 정취를 느끼고 도시민들에게 여유를 선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보건소,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

남원시보건소는 27일 춘향골체육관 광장에서 남원경찰서, 제7733부대, 남원소방서, 남원의료원 등과 합동으로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업무공조를 확립함으로써 생물테러(의심사례) 발생 시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생물테러란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훈련은 춘향골체육관에 수감된 사람이 침투해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를 두고 도주한 상황을 설정하여 생물테러 의심에 따른 신고상황, 상황전파, 긴급출동, 현장통제, 정황 파악, 폭로자 대피, 검체 채취 및 독소다중탐지카드 검사, 검체 검사시료를 위한 이송, 테러범 검거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보건,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의 초동대응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계기로 생물테러(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 향토예비군, 행복홀씨 입양사업 '성공'

## 입양구간 정화 활동 추진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전폭적 모범이 되고 있는 순창군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향토예비군 순창군 지역대의 활동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27일 향토예비군 순창군 지역대원 20여명이 참여해 입양구간이 순창읍 소재 양지천 정화 활동을 추진해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처음 행복홀씨 입양사업 공개모집 시 참여 의사를 표시할 때만해도 사회단체도 많은데 웬 예비군 지역대가 참여하느냐는 우려 섞인 말들이 많았으나, 향토예비군 순창군지역대(대장 이종수)는 매월 전대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정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위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또 양지천이 물러보게 깨끗해졌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순창읍 소재 양지천 정화활동에 참여한 향토예비군 순창군지역대장 이종수씨는 "순창군에 살면서 순창군이 깨끗해지고 살기 좋으면 좋지요"하면서 "우리 담당 구간에 대해 정화활동을 열심히 참여하여 좀 더 깨끗한 순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행복홀씨입양사업 참여단체 지원을 위해 내년도에도 활동 경비 지원을 이어가고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우수 단체 시상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